

# 출가 의미 되새겨... 정진, 운동, 여행 등

## 3월 27일~4월 3일 출가·열반제일 행사 풍성

3월 27일 출가제일과 4월 3일 열반제일을 맞아 부산 경남 지역 각 사찰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올해에도 기도 정진·법회, 소외이웃을 위한 힐링 여행, 청소년 포교를 위한 유발상좌 수계식, 축구 한마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는 길을 끈다.

**통도사**(주지 원사는) 3월 27일~4월 3일 '우리도 부처님 같이' 정진기도를 설립전 및 금강경 독송과 108배 기도는 물론 특별법문도 마련된다. 법문은 △3월 27일 원산 스님(도솔대의상) △3월 28일 성림 스님(비람강생상) △3월 29일 영광 스님(사문 유관상) △3월 30일 우진 스님(유성출가상) △3월 31일 현진 스님(설산수도상) △4월 1일 도문 스님(수하항마상) △4월 2일 법산 스님(녹원전법상) △4월 3일 해남 스님(쌍림열반상) 등이 강사로 나선다.

**미타선원**(주지 하림)은 출가·열반제일을 맞아 3월 27일 기념법회와 함께 금강경 기도 및 사경을 진행한다. 매일 오전 10시 사시에불에 맞추어 금강경을 독송하며 회향일인 4월 2일에는 완성한 금강경 사경을 점검받는 시간도 갖는다. 이와 함께 청소년 포교와 문화사회계층을 위한 나눔행사도 마련된다.

**천태종 삼광사**(주지 무원은)는 출가제일을 맞아 강원도 강릉 정동진으로 떠나는 '힐링 기차 여행'을 3월 26일~27일 마련한다. 해돋이와 소망풍선 담기 등 다양한 프

로그램을 마련 저소득문화소외계층을 위로한다는 취지다. 주지 무원 스님은 "나눔으로 출가제일의 뜻을 기리고 해돋이를 보며 부처님 깨달음의 의미를 되새기는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동해 정동진과 무릉계곡 삼화사를 돌아오는 일정으로 무박 2일로 진행된다.

부처님의 출가제일을 축제의 날로 받아들이는 화합의 한마당도 마련된다. **부산불**

### 통도사, 금강경 독송 108배 기도

### 부산불교연합, 불자 친선축구대회

### 삼광사, 소외이웃 위한 힐링기차여행

**교연합회**(회장 수봉)에 마련한 부산불자친선축구대회 조직위는 3월 29일 부산정보고 운동장에서 '제1회 부산불자친선축구대회'를 마련한다.

참가팀은 미타선원, 원오사, 감민선원, 불국정사 등이 연합으로 소속되어 있는 축구사랑팀, 삼광사, 사회복지법인불국도, 대한불교청년회부산지구 등이다.

특히 축구사랑팀을 이끌고 있는 미타선원 주지 하림 스님은 "그동안 축구사랑팀을 매달 모여 운동을 함께 하고 있다. 이 시간은 신심단련뿐 아니라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이번에도 그 의미를 더욱 강조했다며 더 많은 사찰이 참가해 하



부산 각 지역 사찰 및 단체들이 출가·열반 제일을 맞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사진은 지난해 출가열반제일 통도사 금강경 독송 장면.

나가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 부산불자친선축구대회 조직위는 부산 불자들이 대대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리그전 경기를 올해 가을시즌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해원정사**(주지 원혜)는 3월 27일 해원정사 대웅전에서 부처님 출가제일을 맞아 유발상좌 수계식을 봉행한다. 유아에

서 대학생까지 모두 참석 가능하며 이날 참가자들은 법명을 받고 해원정사 어린이회 및 학생회 소속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또한 **홍법사**는 출가제일을 맞아 4월 2일 수계식을 봉행한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수계식은 출가제일의 의미를 강조하며 수행정진을 당부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 출가열반제일 부산경남 행사(가나다순)

주최	내용	전화번호
미타선원	금강경 기도 및 사경	(051)253-8687
부산불교연합회	제1회 부산불자친선축구대회	(051)867-0501
삼광사	소외이웃 위한 힐링 기차 여행	(051)808-7111
통도사	금강경 독송, 108배 기도, 특별법문	(055)382-7182
홍법사	수계식 봉행	(051)508-0345
해원정사	유발상좌 수계식	(051)866-7771

## 부산적십자불교지구협의회 11주년 기념 법회

### 창립기념 법회 및 김순희 6대 회장 이취임식

재난 재해 지역에서 보살행을 실천하고 있는 부산적십자불교지구협의회가 창립 11주년을 맞았다. 부산적십자불교지구협의회는 3월 10일 부산적십자회관 8층에서 창립 11주년 기념 법회 및 김순희 신임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창립 11주년 기념법회에는 대광명사 목종 스님, 원오사 정관 스님 및 박추자 고문을 비롯한 회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목종 스님은 "회원들은 마음을 더 크게 가

져 모든 아귀계, 지옥계 까지도 품을 수 있는 자비 보살들이 되어 자비행을 실천해야 한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어 박추자 고문의 경과 보고, 배운자 5대 회장 공로패 수여, 전옥자 회원 표창장 수여식순으로 진행됐다. 부산적십자불교지구협의회 회기를 전달 받은 6대 김순희 회장은 "젊은 회원 유치와 보살행을 실천하는 협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하성미 기자**



## 고운사 화엄승가대 현판식 및 개원식

### 3월 9일 사부대중 300여 명 참석

고운사 화엄승가대학원 운수암 현판 제막식 및 개원식이 3월 9일 봉행됐다. 이 자리에는 각성 스님, 회주 혜승 스님, 주지 호성 스님, 김주수 의성군수, 경상북도도의회 최태림 도의원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지 호성 스님은 "의상대사가 창건한 화엄강원 터에 화엄승가대학원 개원하게 되어 감개가 무량하다. 승가대학원이 운수암이라는 현판을 걸고 의상대사 화엄사상의 맥을 이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번 개원을 발판 삼아 고운사가 총림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개원사를 전했다.

이날 개원식에서는 감사패 전달도 이어졌다. 선체험관 법성계 목관, 화엄승가대학원 운수암, 원조도서관, 화엄전, 비로전, 보현전, 문수전 등의 현판 글씨를 제작한 이승호 교수와 서각을 맡은 김기철 작



고운사 화엄승가대학원 운수암 현판 제막식

가 등에게 감사패가 수여됐다.

한편, 고운사는 3월 9일~13일 화엄승가대학원장 각성 스님 초청 대승기신론 특강을 진행,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 호국영령 위로하며 국태민안 발원

### 부산영도구불교연합회 제1회 수륙대제

부산영도구불교연합회(회장 호법)는 '제1회 국태민안·영도구민 행복기원 수륙대제'를 3월 11일 국립해양박물관 잔디밭에서 봉행했다. 1부에서는 오륙도가 보이는 바다 앞을 돌며 시련 의식을 행한 후 육법공양 및 개식 선연, 발원문 낭독이 이어졌다.

영도구불교연합회 회장 호법 스님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초개와 같이 여기고 산화한 호국 영령들에게 존경심을 표한다. 또한 인간의 실수로 참혹하게 숨진 넋들의 억울함을 부처님의 가피로 풀어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수륙대제를 봉행한 뜻을 밝혔다.

행사는 부산불교연합회 부회장 범산 스님, 조계종부산연합회 회장 수진 스님, 어윤태 영도구청장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했다.

부산불교연합회 부회장 범산 스님은 "나라를 편안케 하고 해양사업에 종사하

는 영도구민들의 안전을 기원하는 이번 법회에 부산불교의 모든 사부대중들과 함께 해 기쁜 마음으로 치하의 말씀을 전했다"며 축사를 전했다.

김희운 영도구불교연합회 회장은 "수륙대제를 통해 우리나라의 태평성대와 국민들의 안녕을 기원한다"며 "참가한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앞으로 영도구불교연합회는 매년마다 수륙대제를 봉행, 국태민안과 행복을 기원할 예정이다. **하성미 기자**



부산영도구불교연합회는 '제1회 국태민안·영도구민 행복기원 수륙대제'를 3월 11일 국립해양박물관 잔디밭에서 봉행했다. 사진은 시련 의식 장면.

## 김해불교단체연합·자비암 등 호국 위령제

시대의 희생자들을 돌아보고 위로하는 위령제가 김해불교단체연합회와 자비암 등에서 연이어 실시된다.

김해불교단체연합회(회장 조유식) (사) 김해남산위령대제봉행위원회는 4월 5일 김해 시청 앞 주차장 광장에서 '제3회 김해남산합동위령대제'를 봉행한다.

1부 제례의식, 살풀이, 바라춤 등 다양한 의식이 준비되며 2부 봉행의식 3부 색소폰 연주, 민요 공연, 대중 가요 등으로 문화공연을 마련한다. 4부 특별 출연 5부 회향의례 망자해원 의식으로 마무리 된다.

회장 조유식 회장은 "한국전쟁 당시 보도연맹 사건으로 학살된 김해양민 1,226명과 사라진 김해남산공동묘지 500여 넋을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며 "정부와 김해시, 김해시의회가 위령탑 및 추모공원을 조성 명예회복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산 동래 자비암(주지 자판도) 4월 10일 위령대제에 이어 지역민을 위한 경로잔치를 갖는다. 이는 임진왜란 당시 동래읍성에서 희생된 3000여명을 위로하는 행사로 올해 10회를 맞는다. **하성미 기자**

## 홍법사 대학부 지역 아동 학습 돕는다

부산 홍법사 대학생회가 지역 초·중등생들의 학업을 돕기 위한 멘토링사업에 나선다. 매주 일요일 오후 1시~4시 두 번에 나눠 수업을 진행하며 교과목은 영어, 수학, 과학, 국어 및 한국사다.

이번 사업에는 부산대 학생들이 지도교사로 나서 학생들의 학업을 지도한다. 홍법사 대학생부 조은아 총무는 "참가 학생들 모두 불교와 친숙하게 되는 기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다. 과외 교사로 나선 대부분의 멘토교사들은 과외 활동 경력이 있어 학생들 지도에는 자신이 있다"고 전했다.

이번 멘토링 사업은 학습지도는 물론 고민상담 진행, 영화 및 공연 관람, 소풍 등 야외문화체험 활동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051)508-0345 **하성미 기자**

정, 자, 경제 수

원 문 사 대 법

제 월 사 위

제 월 사

월 산 위 사 대 법

사 위

금

대 부 ( 불, 특수불, 불상)